정든 이웃이 함께 사는
장수마을 이야기
(삼선4구역)
2011년 11 월호
[편집 및 발행 : 장수마을(삼선4구역) 주민협의회, 대안개발 연구모임] [블로그(홈페이지) : http://samsun4.tistory.com]

마음과 힘을 모아 곳곳에 변화를 일궈요~

어느덧 11월, 2011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여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았던 쉼터 조성과 낡은 골목 평상을 개선하는 일을 겨울 전에 마칠 수 있도록 바삐 움직이려 합니다.〔3면〕 문패 만들기에 이어 **우편함과 평상을 만드는 목공교실이 11월 12일과 19일에도 열립니다.**〔2, 4면〕 **11월 19일 평상 만들기로 쉼터 공사를 함께 마무리하고 즐겁게 막걸리 한 잔 나누는 올해의 마지막 벼룩시장을 진행합니다.** 2011년을 함께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진교실에 함께 했던 어린이 친구의 이야기,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 등 읽을거리가 이번 호에도 많습니다.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 우리 모두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2011년 한 해를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11월19일(토) 2011년을 돌아보는 올해의 마지막 장수마을 벼룩시장(녹색장터)

동네국수와 함께 진행하려 했던 6일 벼룩시장 일정이 비소식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아쉽지만 2012년 따뜻한 봄에 동네국수에서 다시 장수마을을 찾는다고 하니 그때를 기대해주세요. 올해의 마지막 벼룩시장을 11월 19일로 옮겨 쉼터 완공을 서로 축하하는 자리로 진행합니다. 2011년 한 해를 함께 한 장수마을 이웃들과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의: 신희철(대안개발연구모임) 010-8728-7418)

2~4시, 청명 앞 정자 : 벼룩시장 기증 물품 나누기

4~5시, 주차장 옆 공터 : 쉼터 완공 기념 막걸리 잔치

『 장수마을 이야기』 이번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2	[경과보고] 문패 만들기 목공교실 1,2회
3	[경과보고] 쉼터조성 및 골목 개선 공사 진행 중
4	[함께해요] 우편함과 평상 만들기 목공교실 3,4회
5	[알립니다] 쓰레기수거가 잘 안된다면
6	[장수사랑방] 소희친구의 사진교실 후기
7	[요모조모따져보기]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8	[요모조모따져보기]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9	[생활의지혜]유용한 상식 / <동네국수> 소개
10	[집수리101] 못 박기 방법 편
11	[집수리101] 못 박기 방법 편
12	[이달의 퀴즈] / [소식지 참여방법]

♧ 이달의 퀴즈 정답자 ♧

10월호 퀴즈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맞추신 분들 대단하셔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10월호 정답자: 남영심 님, 심재석 님, 조용수 님

우리 다시 더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숨쉬며 손잡자고
- 이오덕, 「낙엽」 중에서

경과보고

내 손으로 만든 알록달록 예쁜 문패~
목공교실 1, 2회가 진행되었어요~

△ 알록달록 정성스레 색칠하고 있어요~

△ 나만의 문패를 들고 단체로 기념촬영을~

△ 완성된 가지각색 문패들

집수리교실, 사진교실에 이어 뚝딱뚝딱 장수마을 마을학교 3탄, 목공교실이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15일과 29일, 2회에 걸쳐 진행된 목공교실에서는 나만의 문패와 우편함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목공교실에서는 나만의 문패를 만들어보았어요. 양 손바닥을 펼친 것 만한 A5 크기의 나무판에 글과 그림으로 밑바탕을 도안하여 색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참여한 10여 명의 어린이 친구들은 용도별로 자기 집 앞 대문, 자기 방, 그리고 학교 교실 안내판 등 다양한 곳의 문패를 만들면서 마치 디자이너가 된 것처럼 솜씨를 뽐냈습니다. 하트부터 버섯, 심플한 것부터 알록달록한 것까지 완성된 문패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넘치네요.

두 번째 목공교실에서는 좀 더 어려운 우편함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벽에 거는 우편함부터 새집 모양, 사람이 서있는 모양 등 문패 만들기 못지않은 창의적인 작품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도안에 맞춰 목재를 재단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 완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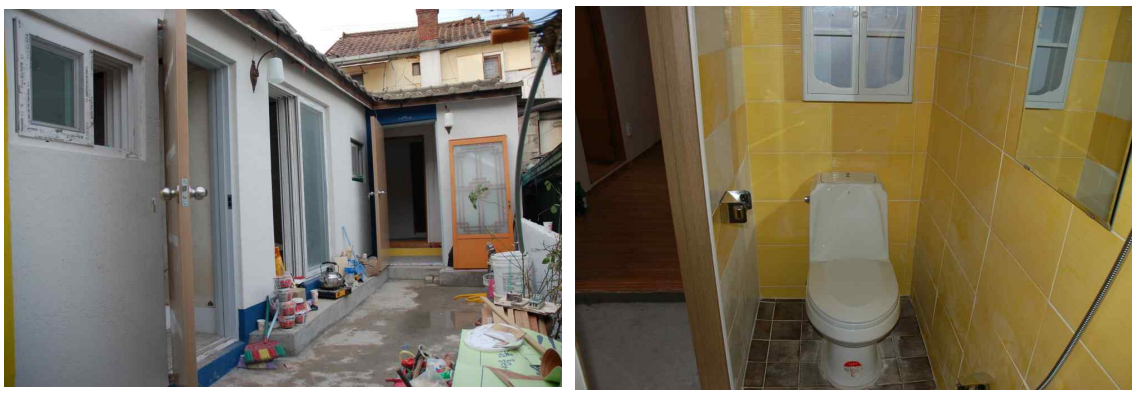
다가오는 11월 12일(토) 3시, 같은 장소인 경로당 2층에서 3차 목공교실을 열고, 우편함을 완성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나만의 우편함을 함께 만드실 분들, 11월 12일 세 번째 목공교실에서 만나요.

경과보고

<동네목수>가 뚝딱뚝딱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쉼터 조성 및 평상골목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장수마을 곳곳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마을기업 〈동네목수〉가 집을 고치고,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고, 집 주인이 세를 놓기 위해 집을 고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재개발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불편한 것을 고치면서 조금 더 나은 여건으로 우리 집과 동네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네목수〉는 빈집을 고쳐서 세를 놓거나 마을 공동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던 295-4번지는 이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세입자가 입주를 하였고, 두 번째 빈집 리모델링을 위해 가옥주와 협의 중입니다. 지난 소식지에 안내되었던 대학생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시설기준이 너무 높아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엔 〈동네목수〉 나름의 방식으로 빈집을 고쳐서 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가는 295-4번지

〈동네목수〉는 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주민쉼터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이었던 공터를 쉼터로 바꾸기 위해 인근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왔고, 11월 중에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주민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낡은 골목 평상을 튼튼하고 이쁘게 고치기 위한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동네목수〉가 직접 하기가 어려워 이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동네목수〉만큼 이웃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기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거나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고 있지만 어떤 일이든 주민 여러분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공사로 인한 번잡스러움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발전과 이웃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과보고

△ 골목 계단 데크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대책을 토론하는 주민들

〈동네목수〉는 집수리와 더불어 골목길 정비나 난간 설치, 마을 내 주민쉼터 조성 등 우리 장수마을 주민들이 고대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멋진 디자인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어른에게는 편리한 시설이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토론하고 협력해서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동네목수〉가 공사를 진행하느라 여기저기서 뚝딱거릴 때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이런 과정과 결과가 우리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좋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나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마을기업 〈동네목수〉에 제안해주세요. 주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동네목수 연락처: 747-6004 (대표 박학룡 010-7178-6744))

함께해요

내 손으로 뚝딱뚝딱 우편함을, 우리가 함께 쓸 평상을 만들어봐요
11월 12일과 19일 목공교실이 열립니다.

10월에 이어 **11월 12일과 19일(토) 3시, 한성경로당 2층에서 목공교실이 열립니다.** 12일에는 지난 번 그렸던 우편함 도안에 맞춰 각자의 개성을 살린 우편함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19일에는 쉼터 및 골목길에 필요한 평상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목공교실에 함께 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우편함은, 그리고 힘을 모아 함께 평상을 만드실 분은 11월 12일과 19일 목공교실에 함께 해주세요.

알립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약속을 어긴다면?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소업체가 좁고 가파른 골목까지 들어와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큰길가 공터를 오래전부터 마을 쓰레기장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음에도 장수마을 골목길이 지금처럼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8월부터 성북구청과 삼선동주민센터에서 마을 쓰레기장을 없애고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섰지요. 우리 주민들은 마을 여건 때문에 공동쓰레기장은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성북구청과 주민센터 직원들은 공동쓰레기장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구분해서 각자 집 앞에 내 놓으면 반드시 치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정된 요일에 쓰레기를 내 놓아도 제 때 수거해가지 않아 고양이나 쥐가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골목길이 엉망이 되기 일쑤입니다. 쓰레기를 내 놓고도 치워갔는지 확인하느라 몇 번씩 대문 밖을 들락거리다 결국 다시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했죠. 요즘은 아예 포기하고 다시 큰길가 공터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있어요. 무릎이 안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큰길가로 힘들게 내려가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예상하고 우려했던 대로 성북구청과 주민센터는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규정이라도 지역 여건에 맞지 않으면 주민들의 오랜 경험을 경청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성북구청과 주민센터는 지금이라도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과 노력을 헤아려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처럼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화, 목, 일요일 저녁에 자기 집 앞에 내 놓아야 합니다. 쓰레기가 제 때 치워지지 않으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서 제대로 치워달라고 요구하세요.

☎ 쓰레기배출 관련 민원이나 문의 연락처
-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920-3870 // 삼선동 주민센터: 923-8893

겨울대비 변신, 할머니쉼터 비닐막이 설치했어요

찬 바람이 불고 날이 쌀쌀해지면서 우리 동네 할머니쉼터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비닐막이를 설치했습니다. 할머니쉼터를 오가는 분들이 좀 더 포근하게 쉴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장수사랑방 : 소희 친구의 사진교실 후기

사진교실을 돌아보며

어린이 사진교실에 함께 했던 소희 친구가 사진교실 후기를 보내줬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 뭉게뭉게 떠오르네요. 싱그러웠던 봄부터 무척 더웠던 여름을 지나, 화창했던 가을까지 마을 곳곳을 누비며 찍었던 사진들, 겨울이 지나 다시 꽃피는 봄에 사진교실에서 더 많은 친구들과 다시 만나길 기대하면서 소희 친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 우리 놀이터가 되었던 벽화 앞에서 찰칵

제목 : 사진교실을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저는 최소희입니다. 9월 24일 사진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들은 추억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했던 사진교실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처음엔 사진교실에 와서 궁금한 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하고, 자기 생각들도 말하니까 점점 가까워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경험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밖에 참여를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조금밖에 참여를 못했지만 재미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울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베프(친한 친구)인 수현이하고 더 가까워 진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던 일은 게임도 했고, 수현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일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속상했던 날은 손을 늦게 들어서 다음 친구가 발표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또 비 때문에 사진교실을 못 갔는데 그 때 한편은 '잘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때 저는 못 갈 상황이었거든요. 제 글이 좀 어설프지만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11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소희 올림

요모조모 따져보기 -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혹시 고금리 사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잘 모르고 덥썩 빌린 사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담보도 없고,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고나 질병, 긴 실직 등으로 돈이 필요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바로 사채입니다. 대부업체도 사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요즘은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리드코프, 미즈사랑 등 TV를 켜면 이러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신청만 하면 바로 대출을 해준다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자가 얼만지, 연체하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이 급하기 때문에 조건까지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청을 하면 일반 은행처럼 까다롭지 않게 통장으로 바로 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상환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채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대출이자는 보통 연 40~45% 수준입니다. 즉, 500만원을 빌리면 1년에 500만원 이외에 200~225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은 이자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제때에 납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정이 생겨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자만큼의 연체이자(연 40~45%)가 추가가 됩니다. 이 연체이자가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연체를 몇 번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돈을 갚아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다 갚아도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이거나 약간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처음에 100만원에서 시작한 사채가 수천만원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 '바꿔드림론'을 아시나요?

1) 지원대상 자격

구분	자격요건	비고
신용등급	6~10등급/특수채무자	연소득 2,600 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연소득	4천만원 이내	연소득 4천만원(환산소득 기준) 초과시 신용보증 제외
연체여부	정상상환자	채무연체・과거 연체기록 보유・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외
보증 금액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시 보증불가
전환대상 채무	6개월 전 약정한 연 금리 20% 이상 고금리 채무	신용보증신청일 기준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이용액(신용구매・현금서비스・리볼빙 서비스 대금)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주1. (과거 연체기록)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보유자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4회 이상인자 제외

주2. (신용회복 지원중인자 포함) KAMCO,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유동화 회사에 채무조정을 받고 계신 고객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신용보증대상에 포함

요모조모 따져보기 -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2) 신용보증 지원내용

- 신용보증 비율 : 100%
- 금리(은행이자 및 보증료) : 평균 11% (신용등급에 따라 8.5~12.5%)
- 상환기간 : 최장 5년 이내 1년 단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 신용보증 절차

자가진단에 의한 상담	콜센터(1588-1288)에 문의하거나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http://www.c2af.or.kr)를 방문하여 구두상담 또는 온라인자가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조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본·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한 접수 및 심사	1. KAMCO 본·지사 방문 후 구두 상담 2. "신용보증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전환대상채무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열람 신청: 신용정보사에 FAX 요청 후 정보 회신 4.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징구 5. 심사대상 확정 후 인터넷 확인용 "접수증" 발급	1.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자가진단 후 개인정보 등록 및 채무내역 입력으로 신청완료 3. 콜센터의 안내전화 수신 후 소득증빙서류 등기우편으로 송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64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 인터넷접수 담당자 앞) 4. 소득증빙서류 우편 송부 및 콜센터의 안내전화 수신 후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청(나이스신용평가정보㈜, 2,000원 결제) 5. 심사 후 대상 여부를 SMS, 전화로 통보 * 콜센터(1588-1288)의 전화 미수신시 진행 중지 될 수 있음.

보증약정 체결	1. 소득증빙서류 미비 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재방문하여 제출 2. 기금의 고객신용평가시스템(CSS) 으로 심사 후 총부채상환비율(DTI)심사 3. 신용보증 승인 후 기금과 "신용보증거래약정" 체결 : 소득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4. 공인인증을 보유한 고객은 인터넷으로도 약정 체결 가능 5. 채무자에게 "신용보증신청접수증" 발급 6.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 바꿔드림론 후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지 않아야 함
대출예정은행 방문 및 대출 신청	1. 대출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중앙회, 외환,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2. "신용보증신청접수증"과 증빙서류 제출 후 대출 신청 3. 신용보증신청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무효

3. 바꿔드림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면?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http://www.c2af.or.kr/)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대안개발연구모임 김윤이(010-2383-6507)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의 지혜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을 상식~

건의함에 퀴즈 정답과 함께 남영심 님이 적어주신 상식 퀴즈를 이번 소식지에서 함께 나눕니다.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정보들, 소식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건의함을 통해서나, 소식지 참여방법(12p)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눠주신 남영심 님, 고맙습니다. ^^)

Q) 검정색 옷에 붙언 먼지를 털 때는?
A) 옷솔보다 스펀지로 털어야 다시 먼지가 묻어나지 않아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Q) 가위에 테이프를 자르다가 끈적거리는 것이 가위에 묻었다면?
A) 끈적거리는 부분을 지우개로 문지르면 잘 닦입니다.

Q) 마늘 등을 먹어 입냄새가 심할 때는?
A) 치즈를 먹거나 우유, 밀크커피를 마시면 마늘 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답니다.

맛난 국수도 먹고, 나눔도 실천하고
성북구 마을기업 <동네국수>를 소개합니다.

이번 달 벼룩시장에 함께 하기로 했다가 비소식으로 취소돼 참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우리 동네 근처에 생긴 〈동네국수〉라는 국수집을 소개합니다. 〈동네국수〉는 성북나눔연대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이에요.

〈동네국수〉는 '건강하고 안전한 재료, 착한 가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행복을 드린다'는 모토를 갖고 만들어졌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모든 재료는 산지에서 직접 공수해온 국산이라고 해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닌 나눔이 목적이기에, 이윤이 생기면 반찬 봉사와 같이 독거노인과 소외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동네국수〉 메뉴는요, 잔치국수(3000원), 비빔국수(3500원), 주먹밥(1500원)이에요. 국수는 같은 가격에 원하는 사이즈(소, 중, 대)로 준다고 해요.

〈동네국수〉는요,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를 나와 맥도날드를 지나 김앤김안과를 낀 골목에 있어요. 맛난 국수도 먹고, 나눔도 실천하고~ 국수가 땡길 때는 〈동네국수〉에 가서 착한 소비를 하면 어떨까요?

집수리 101

집수리 101

『집수리 101』, 101(원오우원)이란 '기초의', '입문의' 라는 뜻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액자 등을 걸때 공간이나 용도에 따라 못 박는 방법이 다릅니다. 각 용도에 맞는 철물재료와 공구 선택만 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못을 박을 수 있으니 두려워 말고 못 박기 방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 못 박기 방법 편 】

☞ 못 박는 부위가 어디가 있을까요?

콘크리트 면

타일 면

철판 면

목재 면

☞ 못을 박는 이유는?

1. 이사나 집을 고쳐서 집안의 환경을 바꾸고자 할 때
2. 욕실이나 필요한 곳에 선반 등을 추가 할 때

*Tip - 플라스틱 앙카 종류!!
1. 분리형 플라스틱 앙카
2. 일체형 타격 앙카

<분리형>

<일체형>

☞ 어떤 순서로 못을 박을까요?

① 못 박을 곳 정하기

② 드릴로 구멍 뚫기

③ 못이나 앙카 삽입하기

④ 망치질 하기

⑤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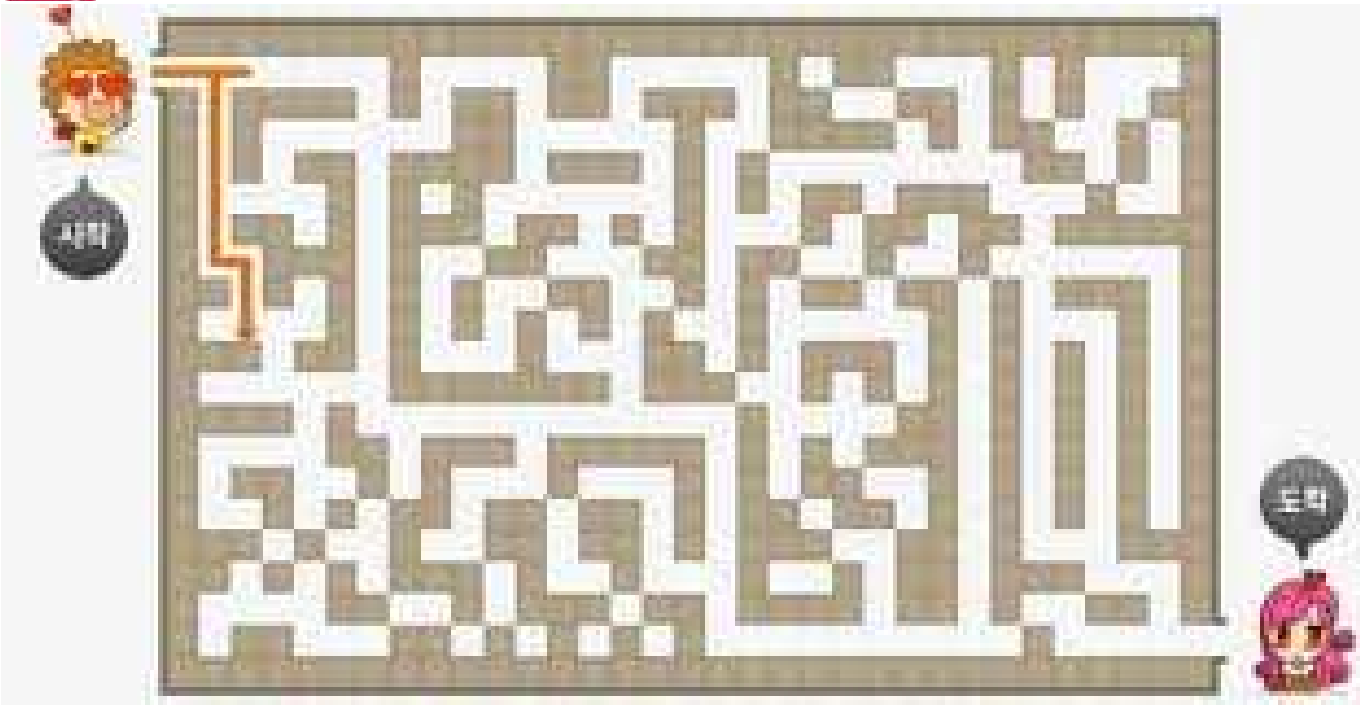
집수리 101

☞ 각 순서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순서	내 용	세부 작업사항 / 유의 사항	사용공구
1	못 박을 곳 정하기	1. 사용 공구 및 자재 준비 2. 줄자/연필 이용 박을 곳 표시 <사용 공구>	전동드릴, 못, 비트 3mm, 망치
2	드릴로 구멍 뚫기	1. 표시한 위치에 드릴이용 뚫기 2. 콘크리트, 타일, 철판, 목재 등 모든 바탕면에 적용 가능 * 구멍 뚫어 플라스틱 앙카고정 하면 쉽게 못박기 가능	전동드릴
3	못이나 앙카 삽입하기	1. 구멍에 앙카를 삽입 2. 욕실 등 타일면 : 분리형 3. 드라이버 작업 불필요 : 일체형 <중량물에 따른 앙카길이 선택>	분리형/ 일체형 앙카
4	망치질 하기	1. 펜치나 손으로 못을 잘 받침 2. 망치의 끝을 잡고 탕탕 친다	펜치, 망치
5	완료	1. 완료 후 액자걸기 * 앙카 시공을 한 후 못을 박는 것은 망치질 횟수를 줄여 주변 민원 등 소음 저감 가능함.	-

* 출처 : 「철천지의 30분 집수리」, 인터넷 블로그 사진 참고

이달의 퀴즈



이번 달은 미로 찾기 퀴즈~

왼쪽 위에서 '시작' 하여 오른쪽 아래 '도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로를 찾아 '도착' 하신 분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종이를 오려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정답을 맞춘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식지 참여방법

<장수마을 이야기>가
더 풍부한 소식지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

1) [이달의 퀴즈] 등 다양하게 주민참여 코너에 함께 해주세요. 퀴즈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2)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야기는 종이에 적으셔서 슈퍼 옆 건의함으로 넣어주세요. 번거로우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어요.

3) 장수마을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고민을 나누며 바꿔나가도록 해요. 당장 많은 변화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점점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 거에요~

소식지 <장수마을 이야기>에 담긴 내용이나 대안개발추진경과 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우리동네 소식지 <장수마을 이야기>는 매달 초에 나옵니다. <장수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은 늘 열려있습니다. 함께 하실 주민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 문의

박학룡 010-7178-6744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02)747-6004
성북주거복지센터 922-5942

♨ 장수마을(삼선4구역) 블로그

http://samsun4.tistory.com/

♬ 대안개발연구모임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258-295860 (예금주 박학룡)